

『음청사』에 나타난 ‘러시아-혁명’ 이해의 양상*

황재문**

[국문초록]

본고는 1905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당대 한국인의 인식과 이해의 수준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랜 유배생활을 경험한 적극적인 신문독자였던 온건 개화파 지식인 김윤식의 일기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이 일기가 당시의 한국 신문에 게재된 1905년 러시아 혁명 관련 기사들에 대한 독자(讀者) 차원의 관심의 방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기에서 서술한 바에는 사건 이전부터 김윤식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 김윤식이 보인 러시아에 대한 이해의 양상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의하면 김윤식은 이른 시기부터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제주도와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1897~1907년의 시기에도 이러한 이미지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즉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및 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주제어: 김윤식, 신문독자, 음청사(陰晴史), 러시아 인식, 1905년 러시아 혁명
Kim Yunshik, newspaper reader, *Umcheongsu* (陰晴史), understanding of Russia, 1905 Russian Revolution

일전쟁의 발발을 상세하게 언급할 때에도 이 이미지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1905년 러시아 혁명과 관련해서는 패전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윤식이 당시의 신문 기사 가운데 노동자의 청원 조건이나 자본가의 문제 등을 다룬 부분은 일기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다만 1905년 러시아 혁명을 패전의 원인이자 결과인 일종의 내란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김윤식 이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지는 다른 사례를 찾아서 살펴야 할 문제이지만,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해 가졌던 당시의 관심의 수준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혁명이라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경향성은 지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1. 머리말

조선이 러시아와 처음으로 접촉한 시기는 나선 정벌이 있었던 1650년 대로 알려져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무력 충돌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조선이 러시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은 아니었다. ‘대비달자’(大鼻獐子), 즉 코가 큰 오랑캐라는 명칭이 대변하듯이 몽골의 별종(別種)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으며, 1860년의 북경 조약 체결로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이해가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결국 실질적인 접촉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19세기 말에 이르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급속도로 밀접해진다. 러시

1) 허동현(2002), 『1880년대 한국인들의 러시아 인식 양태: 공포증(恐露症)의 감염에서 인아책(引俄策)의 수립까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 27-29; 김문식(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 인식』, 새문사, pp. 217-237. 김문식은 이익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묘사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아는 점차 조선의 중요한 교류 상대국이 되었으며, 『조선책략』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영향 하에 형성되고 유포된 공포증(恐露症)이나 대한제국의 대외 전략의 하나로 등장하는 인아책(引俄策)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 지식인 사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교차하면서 나타나게 된다.²⁾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유입되었는데, 당시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신문이나 잡지로 인해 큰 시차 없이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시기에 상당한 양의 러시아 관련 정보가 전달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료들이 러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 수준을 입증하는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 수도 문제이겠지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러시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문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러시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문제는 개별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함께 개인으로서의 수용자가 나타낸 반응이나 발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가장 높아진 시기는 아마도 아

2) 허동현(2002); 허동현(2005), 『개화·일제기 한국인의 러시아 인식에 보이는 고정관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배항섭(2008), 『아관파천 시기 조선인의 러시아 인식』,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노대환(2012),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대러시아 인식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4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허동현(2005)에서는 러시아(소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양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는데, 문명의 주변부에 있는 야만국가나 침략국가로 파악하는 적대적 인식과 독립의 옹호자나 인텔리겐치아의 나라, 이상적 모델로 파악하는 우호적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관파천으로부터 러일전쟁에 이르는 기간일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국가의 운명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짜르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 정점에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존재했다.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기에 당시의 현황이나 러시아 사정과 관련된 기사들이 한국의 신문에 자주 실렸는데, 그 가운데는 이 혁명에 대한 기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본 또는 서구 언론의 기사를 번역하여 신는 수준이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혁명당 및 1905년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다룬 것까지 나타나기도 했다.³⁾

이처럼 신문에서 러시아 및 러시아 혁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러시아 인식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만으로는 당시 한국에서 러시아 특히 1905년 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양과 질이 특별히 높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가 독자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반대로 모든 독자가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균일한 수준의 관심에서 정독하고 수용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주목된 사건이었다는 점은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혁명’이라는 문제 자체를 접할 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러시아 및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인식의 수준은 신문과 같은 매체에 관련 정보가 얼마나 수록되는가보다는 수용자 즉 독자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3) Vladimir Tikhonov (2014), “The 1905-7 Russian revolution seen from Korea: Korean Periodicals Debate Revolutionary Russia”, *Horizons* 5-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을 다른 독자 투고나 비평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당시의 신문에서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듯하다. 다만 간행되지 않은 기록, 특히 개인적인 기록 가운데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이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써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일기인 『음청사』를 검토하고자 한다.⁴⁾

2. 관료-유배객-신문독자로서의 김윤식

김윤식은 처음 관직에 오른 1865년 12월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기를 썼는데, 영선사(領選使)로 선발된 1881년 이후의 일기가 현재 전한다.⁵⁾ 그는 유신환(俞莘煥)과 박규수(朴珪壽)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영선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강화유수를 거쳐서 협판통리내무아문사무(協辦統理內務衙門事務), 협판군국사무

4) 김윤식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권오돈(1960), 『近朝의 漢文學에 對한 一考察: 滄江과 雲養을 中心으로』, 『인문과학』 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래로 한시문(漢詩文) 및 고문론(古文論)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가 다수 발표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인성(2002),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기무라 간, 김세덕 역(2007),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외의식』, 산치람;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국제정치의 상상력』, 창비를 들 수 있다. 특히 김성배(2009)는 김윤식의 생애와 활동을 상세하게 다루어서 참고할 만하다.

5) 현재 전하는 일기는 1881년 9월부터 1921년 12월까지의 것이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6권(음청사, 1958)과 제11권(속음청사, 1971)으로 간행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1881년 9월에서 1883년 8월까지의 일기를 “음청사”로, 1887년부터 1921년까지의 것을 “속음청사”로, 그리고 1883년에서 1887년까지의 것을 “추보음청사”(追補陰晴史)로 명명하였는데, 이를 모두 합하여 “음청사”로 일컫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김윤식의 일기 전체를 “음청사”로 일컫되, 인용을 할 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붙인 서명에 따라 인용면수를 밝히기로 한다.

[표 1] 김윤식의 유배지별 독서 목록

<p>면천 유배기 (1887~1893)</p>	<p>資治通鑑, 句五志, 囊中訣, 道德經, 江漢集, 星軺指掌, 金陵集, 弁州集, 東國通鑑, 白沙集, 魯史零言[李恒福 編], 冲庵集, 說選, 韓詩外傳, 正宗紀事, 晚圃家狀, 寒磻集, 東輿攷, 服齋遺稿, 東國通鑑, 宋鑑, 皇明通紀輯錄, 龜峯集, 安文成公實記, 四友堂集, 柱苑筆耕, 邵亭集, 朱子語類, 禮記, 南谷集, 西事彙編[西國近事彙編], 冶谷集, 語林[明何良俊]</p>
<p>제주 유배기 (1897~1901)</p>	<p>車雲岩雪冤錄, 韓魏叢書, 漁隱叢話, 皇明通紀, 傳燈錄, 復初齋集, 唐代叢書, 瀛寰志略, 漢城新報, 清議報, 皇城新聞, 參同契, 西遊記, 攝生祕剖, 八代詩選, 胡傳春秋, 蘆沙集答問類編</p>
<p>지도 유배기 (1901~1907)</p>	<p>今古奇觀, 戊戌政變記[玄采 編], 燕岩集, 錦溪集, 竹齊集, 東史輯要[金澤榮], 公法會通, 世說抄, 麗史提綱抄, 明朝紀事本末抄, 宋名臣錄抄, 左傳, 經國美談, 泰西新史, 傳燈錄, 大東新報, 大韓日報, 四書正文, 忠孝合璧, 大韓每日申報, 朝陽報, 越南亡國史, 自強會月報, 西友會報, 帝國新聞, 太極會報[太極學報]</p>

(協辦軍國事務),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개화 정책을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외무아문대신에 올랐으며, 노년에는 중추원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이 관료로서 활동한 기간이 길었던 것은 아니었다. 40세가 되던 1874년에 대과에 급제하여 비교적 늦게 벼슬길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유배 또는 근신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1887년부터 1893년까지 면천(漣川)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1897년에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901년부터 1907년까지는 지도(智島)로 유배지를 옮겨 생활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서울 소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며, 당시의 일기에 그 흔적을 남겼다. 이는 아들인 김유증(金裕曾)을 비롯하여 그의 문인(門人)을 자처했던 육종운(陸鍾允)이나 나인영(羅寅永, 즉 羅喆) 등이 유배지를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주었고, 때로는 서간이나 책을 보내준 덕분이었다.

유배 기간 동안 김윤식은 서울에서 보냈거나 유배지에서 얻은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청사』에 기록한 것만 정리해 보아도 그 분량이 상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윤식이 이미 노년에 접어든 유배객이면서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에 제시한 독서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음청사』에서는 책을 전달받거나 빌린 경우 또는 특별한 감상이 있는 경우에만 책의 제목을 언급하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었던 문헌들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목록이 각각의 문헌들을 처음으로 접한 시점을 나타낸 것은 아니기도 한데, 일기에서는 처음 언급되는데도 “다시 읽었다(復閱)”고 서술한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을 통해 김윤식의 독서 경향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고전과 개화사상이나 정책을 담은 서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지식인이었던 김윤식이 가진 관심의 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김윤식은 전통적인 지식과 외래적인 지식 및 정보를 함께 주목해야 했던 것이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신문과 잡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초창기 신문의 발간에도 참여한 바 있지만,⁶⁾ 신문과 잡지를 구해 읽은 기록을 유배기의 일기에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제주도 유배기부터 나타나는데, 특히 지도 유배기에는 의식적으로 여러 종류의 신문을 구해서 읽은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에 제시한 독서 목록에 그 상황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 가운데는 제호를 밝히지 않은 신문들도 포함되어

6) 김윤식은 영선사로 활동하면서 청나라 관리들과 신문의 속성에 대해 대화한 바 있다. 또한 『한성순보』의 창간에도 관여하였으며, 『한성순보』 간행에 참여한 바 있는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에게 글을 써 주기도 하였다.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신문의 내용을 일기에 기록해 두기도 하였는데, 주로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가 어떤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를 통해 짐작해볼 수도 있다. 요컨대 제주 및 지도 유배기의 김윤식은 상당히 적극적인 신문 독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시기가 지도 유배기(1901년~1907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김윤식을 오랜 관료로서의 경력을 지닌 70세 전후의 유배객이자 적극적인 신문독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1905년 전후로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음청사』에 나타나는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건에 대한 이해에는 김윤식이 일생 동안 쌓아온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관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고 이미 지적된 바도 있는데,⁷⁾ 실제로 그러한지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기 자료인 『음청사』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⁸⁾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대체적인 양상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7) 김성배(2009), pp. 211-218. 김성배는 김윤식이 ‘친러’는 의리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보았으며, 중국에서의 정세를 보면서 그 흥중에 ‘친러=수구=망국’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했다고 지적했다.

8) 『음청사』는 일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제약 요인을 지닌다. 일기를 쓸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자세하게 기술하지 못하거나 아예 일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김윤식 경우 외무 관료로서 활동할 때의 일기는 소략하거나 ‘추보’(追補)로만 남아 있다. 유배기와 같은 특정한 시점에는 자신의 유배 해제나 친척 및 지인의 등용 여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다른 주제에 대한 언급은 소략해지기도 한다. 개인의 일기는 사후에 수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때문에 특정한 구절이 기록된 시점의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3. 제주 유배기 이전의 인식: 편견 또는 부정적 이미지의 형성

김윤식은 관직 생활 초기에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는 못하였다. 『조선책략』이 유포된 이후 러시아의 위협 여부가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김윤식은 청과의 교섭에 주로 참여하였고 러시아와의 교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초기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막연한 것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편견에 가까운 일방적인 것이기도 했다. 또 때로는 서양/서양인 일반에 대한 인식의 일부로서 나타나기도 했다.

일기에 나타난 초기의 사례는 영선사로 파견되어 청국 관리들과 주고 받은 필담(筆談)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당경성(唐景星), 허기광(許其光)과 진행한 필담의 일부이다.

[김윤식] 일찍이 듣건대 태서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러시아 이외에는 남의 토지를 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 또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曾聞泰西諸國, 惟俄外不貪人土地, 此說亦妄.).

[당경성] 대개 토지를 탐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은 돈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大約各國, 無不貪土地, 如人無不貪銀錢.).⁹⁾

[김윤식]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래에서 의론이 일어나고 윗 자리에 있는 자가 편견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실패하는 일이 드뭅니다(泰西各國, 議起於下, 在上者無成心, 故鮮有敗事.).¹⁰⁾

[허기광] 태서에서 윗자리의 사람에게 편견이 없는 나라는 미국 정도입니다. 영국은 아직 과거의 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찬탈과 시해가 잇달아 나타나고, 러시아와 독일에서는 그 임금

9) 『음청사』 1882년 3월 22일, p. 126.

10) “성심”(成心)은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말이다. 주관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견해를 뜻하니, 편견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을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배울 만하지 않습니다(泰西無成心者, 美而已. 英尚能持其故. 於法則篡弑相仍, 俄·德, 屬仇其上, 皆不可爲訓.).

[김윤식] 서양의 나라에서는 형제의 인륜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似聞西國, 無兄弟人倫, 信否.).

[허기광] 요즈음에 와서 조금 윤리를 알게 되었는데, 또한 거의 중화의 풍속에 물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近日, 稍知倫紀, 殆亦漸染華風.).¹¹⁾

당경성과의 필담에서는 영선사 활동 이전부터 김윤식이 가졌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엇보인다. 러시아가 다른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남의 토지를 탐내는 나라라고 들었다 하였으니, 김윤식은 러시아가 서양 국가의 보편적인 덕목을 지니지 못한 특이한 나라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에 대해 듣고 발언한 것임을 고려하면 프랑스 또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하다는 당경성의 말을 김윤식이 받아들였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허기광과의 필담에서 김윤식은 서양 국가의 장단점을 모두 거론하였다. 장점이란 윗사람이 편견 없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단점이란 형제와 같은 인륜(人倫)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¹²⁾ 서양 국가를 직접 접한 경험이 있는 허기광은

11) 『음청사』 1882년 5월 9일, p. 158.

12) 김윤식이 윗사람에게 편견이 없어서 실패가 드물다고 지적한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김윤식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서양에서의 상하 관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 김윤식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은 유의해 볼 만하다. 국왕 권한의 제한을 지향하는 김윤식의 견해에 대해서는 김성배(2009), pp. 237-262 참조. 다만 여기서 언급한 “태서 각국”에 러시아가 포함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미국이나 영국 정도가 상하 간에 조화를 이룰 뿐이며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은 임금을 죽이거나 원수로 여길 만큼 갈등이 크다고 했고,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중국의 풍속이 퍼지면서 인륜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 필담에서 김윤식은 귀신을 숭상하고 겸애(兼愛)를 행하며 기교를 숭상한다는 점에서 서양을 묵자의 부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허기광 또한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이해가 아직 구체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러시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김윤식은 이후 러시아와의 통상조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관직에 있었기에 러시아와의 실제 접촉 경험을 갖게 되지만, 면천 유배기의 일기에서도 러시아를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으로 묘사하는 예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 퍼진 외국인에 의한 아동 납치 소문을 언급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백성들의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 근심하고 비판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¹³⁾ 구체적 인식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독일의 공맹학교(孔孟學校)나 한문학교(漢文學校)를 언급하면서 동양의 좋은 풍속이 서양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사례도 보이는데,¹⁴⁾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허기광의 견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역시 추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면천 유배기에 러시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예로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러시아 황태자가 일본 순사 쓰다 산조(津田三藏)의

13) 1888년 5월 13일과 23일의 일기에는 외국인이 승복을 입고 유괴하거나 약을 섞은 엿을 먹여서 납치한다는 소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서울에서 소문이 사라진 뒤에도 향리에서는 계속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하였다.

14) 『음청사』 1890년 7월 15일, 1891년 2월 17일. 공맹학교나 한문학교에서는 性命之學을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실제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이 사건으로부터 서양이 동양을 배우게 되리라는 스승 박규수의 말이 옳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칼에 부상을 당한 일 즉 ‘오쓰’(大津) 사건에 대한 것인데, 1891년 4월 21일(양력 5월 28일)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 5월 11일이니,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빨리 소식을 접했던 셈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사쓰마(薩州)로, 범인이 자유당(自由黨)의 난민(亂民)으로 기술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¹⁵⁾ 러시아에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 하고 일본에서 이에 대비하는 등의 위기가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정보의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를 원수로 여기는 자의 행위이며 일본정부의 뜻이 아니다(讎視其朝廷者之所爲, 非日本政府之意)”라는 일본 측의 해명이 제시된 것을 보면 일본에 퍼진 소문이 이 기록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영선사 활동 시기의 필담 기록을 모은 책을 편찬하면서 쓴 『천진봉사연기』(天津奉使緣起)에서 찾을 수 있다. 1892년 6월 6일의 글이니, 10여 년이 지난 뒤에 유배지에서 영선사 활동 시기를 회고한 것인 셈이다. 김윤식은 “러시아는 그 영토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넓혔는데, 여기에 군사를 주둔하고 항구를 열었다. 우리나라와는 강물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 마치 호랑이가 곁에 있는 것과 같다.”¹⁶⁾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호시탐탐 남의 땅을 노리는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6월에 강화유수로 복귀한 이후의 일기에서는 러시아가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김윤식이 서울에 머물면서 외부(外部)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실제로 러시아 황제 조문 등을 위해 러시아 공관을 방문하거나 러시아 공사를 접촉

15) 일본 자유당에 대해서는 1888년 1월의 『한성주보』(漢城週報)에 유신 시대의 제후(諸侯)·왕공(王公)의 자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반란을 도모한다는 식의 묘사가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

16) 『속음청사』상, 1892년 6월 6일, p. 228. “俄羅斯廓其境土, 至于海蔘威, 屯兵開港, 與我國邊疆只隔一水, 如虎豹之在傍.”

한 일 등 공적인 업무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업무나 체험과는 거리가 있는 소문도 일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나 인식의 틀이 엿볼 수도 있다. 베베르[韋貝, Weber Karl Ivanovich]의 동정에 대한 소문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김윤식은 복귀 이전의 일기에서 이미 베베르가 일본과 조선 정부 간의 조정을 시도했다는 소문을 언급했으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직 러시아만이 일본을 의심하여 병함(兵艦)을 불러들여서 왕궁을 호위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소문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잘못된 소문임이 밝혀졌다고는 했지만 대원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서신을 보내 러시아에 구원병을 청했다는 소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¹⁷⁾ 이를 통해 김윤식이 ‘외국의 영토를 탐내는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1896년 1월의 아관파천 이후에 김윤식은 관직을 잃었으며, 서울을 떠나 피신 및 근신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러시아의 동정은 자주 언급되는데, 아일밀약(俄日密約, 1897. 3. 2 및 3. 22), 러시아 사관(士官)의 입국(1897. 8. 12), 공사의 교대(1897. 9. 5), 재정 고문 알렉세예프[夏櫟燮, Alexieff]의 동정(1897년 10월~11월) 등에 대한 기술이 보인다. 당시 김윤식은 과천 및 광주(廣州, 지금의 방이동)에 머물고 있었으니, 방문객들로부터 이와 같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일기들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고 있는 상황을 근심하는 모습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정국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더 큰 관심사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7) 『속음청사』상, 1896년 2월 1일, p. 390.

4. 제주 유배기의 기록: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에 대한 예상

1897년 12월 21일의 일기에서는 자신을 제주도로 종신정배(終身定配)하는 명이 내렸다고 기록했다. 이후 1901년 7월 10일에 새로운 유배지인 지도로 떠날 때까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 김윤식은 나인영(나철)과 동행하였으며 편지와 신문을 통하여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제주도에 두 차례의 민란이 있었는데, 김윤식을 비롯한 유배객들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 ‘방성철의 난’과 ‘이재수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이 두 차례의 민란은 부분적으로 외국 세력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였으므로,¹⁸⁾ 민란의 과정에서 당시의 국제 정세와 관련된 소문들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유배지인 제주도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일기에 러시아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음청사』에서의 언급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2]는 제주도 유배기 동안 작성된 일기 가운데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지에는 서울에 퍼도는 소문과 신문에 실린 기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일기에서 ‘편지’를 출처로 거론한 부분은, 결국 소문일 수도 기사일 수도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편지에서 언급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은 결국 편지 작성자의 관심이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김윤식 자신이 신문 독자로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일기에서 러시아를 거론한 사례들은 대체로 국제 정세의 변

18) 『음청사』에서는 방성철의 난을 1898년 2월 8일에서 4월 2일까지, 이재수의 난을 1901년 2월 9일에서 6월 13일까지 다루었다. 이재수의 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세한 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도로 유배지를 옮긴 이후에도 그곳에 전해진 소식을 다시 언급하였다.

[표 2] 제주도 유배기의 러시아 관련 기록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898. 3. 10	배(顯益船)	절영도 문제, 한아회사(韓俄會社), 러시아 은화 통용
1898. 3. 21	한성신보	절영도 문제, 아한도승은행(俄韓道勝銀行) 설치
1898. 4. 5	편지	러시아에 대한 반발 여론, 사관 및 고문관 철수의 건
1898. 6. 16	편지	일·러의 협약(한국의 자주, 고문관 파견 사전 협의)
1898. 11. 11	북경의 소식[近信]	청 황제의 독살설(황태후-러시아의 연계에 대한 소문)
1899. 4. 12	편지	서양 제국의 회담(러시아의 농간으로 실익이 없을 것)
1899. 12. 1	편지	러시아·영국·일본의 갈등과 전쟁 준비
1900. 1. 31	일본의 배	러시아와 일본의 개전설
1900. 2. 8	소문[傳聞]	러시아와의 밀약설로 인한 처벌 소식(이용익 등)
1900. 3. 3	편지	러시아와 일본의 화평조약, 개전설 사라짐
1900. 8. 23	편지	의회단 운동 이후의 처리 문제
1900. 11. 9	편지	의회단 운동에 대한 처리 및 러시아의 불만
1901. 2. 11	근일 신문	유인석이 러시아에 구원병을 청했으나 실패했다는 소문
1901. 3. 2	황성신문/ 한성신보	러시아·일본 밀약설과 일본의 반응
1901. 3. 13	편지	아청밀약에 대한 일본의 반응(흑룡회/수상 이토)
1901. 6. 5	일본 순사 [대화]	일본의 현황에 대한 문답 → 러일개전의 견해(김윤식)

화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세력이 커진 러시아가 라이벌인 일본과 전쟁을 벌일 것인가 즉 화평(和平)인가 개전(開戰)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유배를 떠나기 직전의 일기에서도 이미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은 나타난다. 김윤식은 1897년 12월 25일에 제주 유배의 명을 받고 고등재판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발행하던 신문인 『한성신보』